“수륙재 유네스코 등재, 공동체적 연대 강화가 핵심”

진관사수륙재보존회, 2월 27일 제1회 학술세미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염원
“단순한 의례 아닌 연대 강조”
문화 장치 충족…등재 기대감
“소유자가 신청 핵심 존재돼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륙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염원하며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수륙재가 단순히 전통 보전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연대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이 확인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로,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진관사수륙재보존회(회장 법해스님)는 2월 27일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흙다움에서 ‘제1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수륙재와 인류무형유산의 공동체성’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불교 최대의 의례인 수륙재의 역사와 그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를 무형문화유산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와 특징에 주목했다. 수륙재는 단순한 불교의례가 아니라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장이며 산자와 망자가 함께하는 공간을 창출해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사진〉은 ‘수륙재의 역사와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에서 공업(共業)을 되새겼다. 구 소장은 “수륙재는 파편화·개인화된 시대에 주변을 돌아보고 인류가 함께 지어온 공업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의례”라며 “의례를 통해 자비심과 이타심을 새기고 실천하며 그 마음이 자신과 중생에게 더 큰 공덕으로 확산해 지혜롭고 자비로운 문명을 건설해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륙재 의례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주체가 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공유하고 성찰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자생적 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수륙재는 결국 산 자들을 위한 의례임은 강조한 구미래 소장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지구촌의 재앙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지어온 공업의 의미를 새기면서 공동체가 함께 선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수륙재의 가치가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라면서 “죽은 자를 위한 수륙재에 머물지 않고 현세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일이 참된 수륙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륙재는 의례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주체가 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공유하고 성찰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자생적 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지구촌으로 재앙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지어온 공업의 의미를 새기면서 공동체가 함께 선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수륙재의 가치가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도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사회문화적 의미: 민족지적 접근을 통한 분석’에서 진관사 수륙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무차평등(無遮平等)’ 정신 실천을 꼽은 함 원장은 “단순히 특정 의례의 지속성을 넘어 무형유산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반영하며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돈희 수륙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공동체위원장은 기조발표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과 공동체성’에서 “자신들의 무형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는 주체로서 등재신청 작성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유산의 보호 및 보존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인류 문화 속에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계기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과 공동체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소중한 국가 문화유산”이라며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국행수륙재가 가진 공동체적 의미와 인간 존엄에 대한 메시지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치하했다.

진관사 주지 진관사수륙재보존회 이사장 법해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대상으로 한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 연구는 불교의 무형적 가치를 확인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출발점으로 여러 사찰로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397년 조선 초 불심이 깊었던 태조 이성계 대왕이 조선을 건국하며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충혼과 전란 기근으로 목숨을 잃은 많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왕실의 조종(祖宗) 선왕선후의 명복을 기원하였고 백성들이 서로 소통화합으로 국가의 미래가 번영하기를 염원하며 설행했다.

“조계종단, 화평 표상 돼야”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유시 발표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사진〉가 2월 26일 ‘화합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 불조의 혜명을 드높이라’는 유시를 발표했다.

자광 대종사는 유시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대종사는 “모든 것이 혼란한 세상에서 갈등을 화합으로, 투쟁을 대화로 바꾸어 내는 지혜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면서 “조계종단이 화평세상을 열어가는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화합중(和合衆)”이라며 “승가라는 말 자체가 화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이니 승가에게 있어 화합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자광 대종사는 “법고창신의 종단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도 승단 일부가 종문(宗門)의 울타리를 벗어났으나 이제는 크게 보듬어야 할 시기”라며 “이들이 의발(衣鉢)을 놓지 않고 참회와 기도로 살아왔다면, 부처님 제자로 종단 일원으로 회향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글로벌문화추진단장에 주석 스님 위촉

진우 스님, 2월 21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석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글로벌 문화추진단장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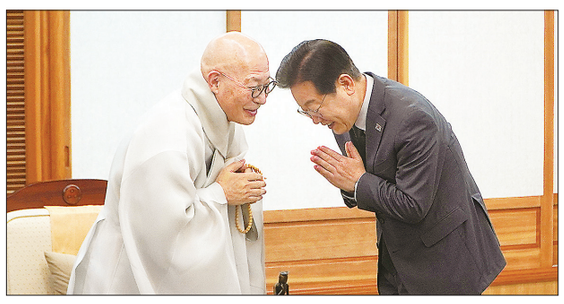
위촉식에서 진우 스님은 “불교가 대중 속에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글로벌 종합 불교타운이 건설되면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단장 주석 스님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만들고, 현대인들의 치유와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제적인 명상센터로서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미래불교 도량을 건립할 수있도록 종단과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석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이재명 대표, 불교계 지도자 예방…현안 지혜 구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예방





‘덕의 정치’를 당부한 진우 스님에게 이재명 대표는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왼쪽 사진). 상진 스님이 이재명 대표에 〈수봉상진법어집〉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표는 “법어집을 읽으며 마음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오른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혜를 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4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옳고 그름을 떠나 덕의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지지하는 이도 많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반대편에게 다가가서 진실되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덕장으로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저를 포함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덕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삶이나 나라의 미래에 저해요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내란 사태 전후로 조계종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줬고 우리 국민이 갈 길을 제시해줘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정치인들에게 죽비 같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게 된다며 화광동진(和光同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볼 것을 조언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의 삶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상진 스님은 이재명 대표에게 〈수봉상진법어집〉을 전달하며 “정치하며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을텐데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에 이재명 대표는 “법어집을 읽으며 마음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탈진실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유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더욱 폭력적이고 전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계가 국민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실과 진리에 기반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9차 정기총회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스님들의 수행정진과 불사포교에 무장애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칙 제·개정 인준과 2025년 사업 예산승인 등 중요한 안건 인준이 있을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2569(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
- 안 건 : ① 회칙 제·개정 인준의 건
  ②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③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④ 기타 안건

불기 2569(2025)년 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